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합시다

-돼지콜레라 발생 크게 증가 우려

-홍보부-

양돈농가들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률이 크게 부진해 질병 발생이 크게 우려되므로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야 하겠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 19일 돼지콜레라와 닭뉴캐슬병 예방접종 부진으로 이들 질병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 시도에 긴급 지시하는 한편, 양축농가들에게 당부했다.

농림수산부는 '93년도의 돼지콜레라 예방약 소비량이 '92년보다 10% 줄어든 17,946천두분으로 나타나 질병 발생이 크

〈표2〉연도별 돼지콜레라 예방약 소비량


연 도	돼지콜레라
'92	19,842천두 (100%)
'93	17,946 (90%)

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과거 돼지콜레라가 발생했던 농장에서는 자돈출산시 초유를 먹기 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포유전 예방접종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돼지 사육

두수는 5,928천두로 연간 26,000천두분의 돼지콜레라 예방약이 필요하나 실제 예방약 소비량은 17,946천두분으로 접종률이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돼지콜레라는 전염성이 큰 돼지의 급성전염병으로 전염률 및 폐사율이 높고, 출혈성 패혈증이 특징이다. 임상증상은 백혈구 감소증, 초기에 변비와 후기에 설사를 보이고, 후구마비, 경련 등 뇌증상을 보인다. 폐사율은 80~90%이고, 치료방법은 없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돼지콜레라 백신은 자돈의 경우 6일령과 9~10일령에 각 1ml를 근육에 주사하고, 모돈은 중부 2주전에 연 1회 1ml를 근육내 주사하면 된다. 

〈표1〉돼지콜레라 예방약 소요량

	사육두수 ('93.121현재)	연두수	예방약소요량 (A)	'93 소비량 (B)	비 고 (B/A)
돼지콜레라	5,928천두	13,041	26,000	17,946	69%